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46 (2021. 11. 30. 화)

2021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하루는 더디 가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제겐 1년이 제일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저희 아가페는 12월 15일(수) 방학에 들어가 내년 1월 4일(화)에 개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성탄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요. 핸드벨, 성구암송, 방국시 암송, 율동 등을 준비하느라 스웬들은 바쁘고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방국은 건기에 들어가 나뭇잎에 먼지가 쌓여 초록을 볼 수 없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제발 비 한방울이라도 내렸으면 하는 소망이 2월까지 지속됩니다. 한국은 비대신 눈이 오겠지요. 이르지만 감사가 넘치는 한해 마무리와 기쁨과 소망의 새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가페 현 상황

1. 아가페 스쿨은 한 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사의 한 달간 훈련기간이 마쳐져 한 개 반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샬로미라는 교사까지 총 4명의 교사가 한 반 6명씩을 담당하게 되고 시골에 가 있던 아이들이 옴으로 인해 두 개 반은 7명까지 되어 더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 하나씩을 교실로 활용합니다.



루비나 교사 반 - 7명
메헤라즈,빠리,파힘,라미아,루비아아,샬
만2,아부보골



리따 교사 반 - 7명
에호싼,빠엘,모리엄,사벨,아메나,알라민,
빌랄



모울리 교사 반 - 6명
신티아,머호나,사디까,샤뎀,아이샤,나킵



샬로미 교사 반 - 6명
씨판,압둘,아킵,알라민,따하,사밀

2. 아가페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몇은 콧물 또는 기침 등으로 간간히 아프기도 하지만 비교적 큰병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저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화)에 있을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행히 새로운 샬로미 교사가 울동을 아주 잘해서 아이들이 잘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감사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친구' 라는 방국 찬양 울동

'징글벨' 울동을 지도하는
모울리(우), 샬로미(좌)교사
아이들은 즐거운 듯...





무엇일까요? ㅋㅋ 촉감으로 사물 이름을 맞추는 게임 중 - 감자와 양파까지 등장



이 부로맨스 무엇? - 아킵,파힘,압둘 이젠 아이들이 많이 커서 손이 저만하고 남을 돕는 일도 잘해요.

3. 센터에서 넘어져 앞니 끝이 부러졌던 샤밌의 치료는 진행 중입니다.

앞니 두개에 대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데 염증이 다시 생겨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겸하여 모든 충치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썩은 어금니는 발치하고 다른 어금니는 치료 후 아말감을 넣었습니다. 정작 앞니 때문에 갔는데 앞니 치료는 한 달 이상이 되도록 못하고 어금니 충치 치료만 하게 되어 이것도 샤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인 듯 싶습니다.

4. 아가페 널서리는 중증 아이들이 많아 스텝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라킵, 돌나, 무란, 리싸, 살만1, 마푸자, 마이샤, 알리, 하미다, 아라팻, 랍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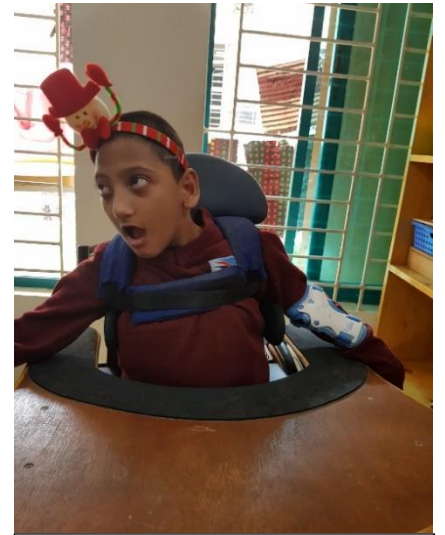
3명의 스텝이 10명의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굳은 근육에 테라피를 해주어야 하고, 균형 못잡는 아이들이 넘어져 다칠까봐 신경써야 하고, 테라피 시간에 우는 아이들, 또 점심 시간에 못먹는 아이들 배식, 대소변 뒷처리 등... 아픈 손목으로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힘을 쓰고 나면 점심 시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저는 갇아줄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기도해 주십시오. 널서리 스텝들의 건강과 기쁨을 위하여...



알리는 스스로 다리를 굽혀 걷거나 계단 오르기를 못합니다.



살만1-근무력증으로 서거나 걷기가 어렵습니다. 방국 숫자 공부 중...



라킵-볼 수 없지만 눈은 제일 예뻐요. 눈사람 머리띠를 쓰고... 아래는 무릎...



널서리 동화 시간
이시간에 늘 잠을 자는 마이샤, 시골에서 온 하미다도 함께...



5. 아가페 널서리 라킵은 이제 밥을 으깨어서 주면 저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못씹고 못 넘겨 인슈어라는 중환자식을 먹이고, 우유를 먹었는데 이제 야채도, 생선도, 고기도 잘게 으깨주면 조금씩 씹고 천천히 넘깁니다. 차츰 대용식을 줄여나가고 있고 인슈어는 남은 한 통 이후로는 중단해도 될 듯합니다. 우유는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줄일 예정입니다. 몸무게도 20Kg이 넘고 키가 커져서 저는 이제 더는 라킵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6. 라킵 누나 사만나는 12월 11일(토) 부터 5학년 졸업 시험을 봅니다.
그 전에 학교에서 본 예비시험은 pass했다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고 엄마는 기뻐합니다. 예상문제를 다주고 시험을 보는데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그래도 사만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7. 라킵 가정은 점차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온 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라킵도, 라킵 엄마도, 누나인 사만나도, 그리고 새 아버지도 나름 안정을 찾아가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면 생전 처음인 곳에 지인들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다는 것이 그들에겐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방에 그것도 신속하게 인도해 주셔서 저도, 그들도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라킵네 집 - 요리를 하고 있는 라킵 양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침마다 경기약을 먹어야 해요.



센터에서 - 라킵, 엄마, 그리고 누나 사만나

8. 매니저로 온 뜯뚜라는 청년이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부인과 함께 센터 부근에서 신혼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모울리라는 교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이후 사직을 하면 또 새로운 교사를 채용해야 하므로 이 과정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내년은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홈매니저 부부도 와야 하고, 아가페 스쿨 교사도 모울리 대신 채용해야 하고, 아가페 널서리 교사도 한 명 더 채용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순조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샤밌의 남은 치과 신경치료가 빠른 시일내에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 널서리 스텝들의 건강과 기쁨을 위하여 주님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매니저 뜰뚜가 건강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라킵 누나 사만나가 5학년 졸업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라킵의 가정이 라킵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7) 새로 온 아이들(따하,살만2,샤밀,아부보꿀,마이샤,아라팻)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 따하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이여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 8) 라킵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부탁드립니다. 누나 사만나에게 지혜 주시어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라킵 엄마에게 건강 주시어서 라킵을 잘 돌볼 수 있도록...
- 9) 아이들과 스텝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10) 저희는 매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부족하나마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알고 있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좀 나아지겠다 싶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놈이 나오나 봅니다. 이제야 시골에서 다카로 올라오고들 있는데, 다시 심하여 질까 걱정입니다만 제 예측과 능력 밖의 일은 이제 걱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직 주의 계획하심 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주님의 능력이 저의 약함 가운데 완성됨을 알면서도 수시로 강한 척 뛰어 나가는 저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지만 이 나이에 온전히 언어도 안되는 이 방국에 있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심을 제게 가르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는 신실하심에 감사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